

이 달 사 의 양 관 리

1. 일반관리

일반적으로 이달은 양계에 알맞은 기후조건이라 하여 관리에 방심하기 쉬우나 환절기의 격차, 큰 기온의 변동으로 자칫 피해를 받을 우려가 크다. 특히 변절기에 발생하기 쉬운 모든 질병과 하절기의 무더위와 장마를 겪어 오는 동안 극도로 약화된 체력을 회복하여 닭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고로 발휘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영양공급과 적절한 환경을 조성하여 줄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달은 하절기의 사료 섭취량에 비하여 3~5%의 사료섭취량의 증가를 보이는 것이 보통이므로 사료급이량에 대해서도 충분한 배려가 요구된다. 아울러 조석으로 낮은 기온을 대비하여 다소의 방한 방법도 강구하여야 하겠으나 환기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점등관리

(1) 육성계의 점등

10월에 부화한 병아리는 특히 점등에 대한 자극이 민감하므로 최초 20주까지는 6~9시간의 일조시간을 제한하여 주는 것이 좋겠다. 부화후 10주~20주까지에 점등이 닭에 미치는 영향이 극히 민감하므로 이 시기에 점등 시간을 연장하여 주게 되면 병아리의 뇌하수체를 자극하여 조속하고 초산이 빨라지게 되고 알의 크기는 자연적으로 작아지게 될은 물론이거니와 산란 지속성에도

영향이 크다.

그러므로 10월에 부화한 병아리에 대한 점등계획중 한가지 방법을 하기에 제시한다.

- ① 병아리의 20주령시의 일조시간(자연일장)을 산출한다.
- ② 20주령시의 자연 일장에 5시간을 더한다. ③ 처음 1주간은 20주령시 자연일장에 5시간을 더한 만큼의 점등을 하고 그 이후로는 매주 15분씩 점감하여 20주령에 도달하면 자연 일장에 도달하도록 한다.

④ 그 후의 점등은 산란계 점등계획에 따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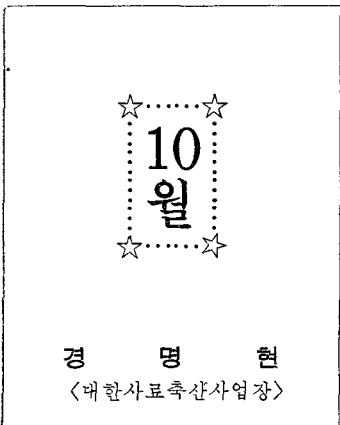
(2) 성계의 점등관리

일반적으로 산란계의 점등은 초산시로부터 점등시간을 연장하여 주는 점등법을 고려하는 자 양계장이나 부화장별로 그 방법이 다르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산란계에 대하여 자연일장에 맡겨 전혀 점등을 고려하지 않는 양계가는 없을 것이므로 이달에는 점차 감소되고 있는 자연일장에 맞추어 조석으로 점등시간을 연장하여 주는 것이 좋은 것이다. 최고 점등시간이 자연일장을 합하여 17~20시간을 넘지 않도록 하는게 좋을 것으로 생각되며 40주령 미만인 산란계에 대해서 17시간 이상의 점등을 하는 것도 다소 무리가 아닌가 생각된다.

3. 과산계(무산계)에 대한 대책

증가하는 사료 섭취량과 기온의 변화로 발생되기 쉬운 질



병 그리고 점등관리의 차질등으로 빚어지기 쉬운 과산계(특히 지방계)는 육안으로 구별하기 힘들므로 무산계가 발생하기 쉬운 원인을 알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이 좋을 것이다. 무산계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① 육성 기간중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세균 및 바이러스가 생식기관에 침입 생식기능을 상실케한 경우. ② 사료중 단백질 함유량에 기인하는 경우(이 경우 단백질 함유량과 칼로리량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 지방계) ③ 미량성분(몰린 메치오닌 비타민 E)의 부족에 의한 경우. ④ 불량사료 : 사료중 지방의 함유량이 과다하거나 저장중 산화부패되어 사료중의 비타민E가 파괴된 경우. ⑤ 점등 및 부리절단 투약 및 예방접종등 관리불실에 의한 경우. ⑥ 심한 환경변화나 스트레스에 의한 경우 등에 의하여 과산계 혹은 무산계가 발생될 수 있으며 이중 ②③항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과산계는 사료 톤당 열화콜린 1kg 비타민 E 10,000단위 비타민 B₁₂ 12mg을 3주간 투여함으로써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의 반량을 사료중에 섞어 주므로써 예방효과를 노릴 수 있다고 한다.

4. 스트레스 방지

스트레스가 닭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재론할 여지도 없거니와 특히 이달은 닭의 능력을 최고로 발휘시킬 수 있는 자연환경이라고 하였던 바 각종 예방접종이나 사양관리면에서 닭에 미치는 스트레스를 최대한 방지하여 주어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닭이 받게되는 스트레스의 요인 원인은 ① 질병 및 기생충 또는 투약에 의한 스트레스(가능한 예방접종은 초산이전에 실시할 것)

② 환경스트레스·더위와 추위 바람 또는 기상의 급변등도 닭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나 이달에는 특히 1일의 기상변화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야겠

③ 관리스트레스 : 급수기, 급이기의 부족 또는 같은 계사내에 일령이 다른 계군을 혼사하는 경우(특히 평사의 경우 스트레스가 심한) 일령이 맞지 않는 사료의 변화 등은 가급적 피해야 하겠다.

④ 물리적 방해 : 불필요한 쥐잡이나 이동 갑작스런 소음 불빛이나 햇볕, 급이, 절란, 청소 작업등은 산란에 방해가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스트레스를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힘써야겠다.

5. 기 타

(1) 질병대책

1일 기온의 급변으로 발생하기 쉬운 호흡기병에 대한 예방과 성계케이지로 이동할 육성계는 적어도 이동 1주일전에 최소한 구충을 실시하는 것이 좋다.

(2) 온도, 습도 및 환기

환기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면서 조석으로 실내 보온을 실시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겠다. 보온재로는 비닐보다는 통풍에 도움이 되는 가마니나 벧짚이 낫겠다.

(3) 단 열

1일의 기온격차가 심한 경우 계사에 단열구조는 더욱 긴요하다. 단열은 환기가 양호하도록 적절한 것으로 택해야 하겠고 나아가서는 실내의 계분 및 급수기에서 발생하는 수분을 제거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온과 공기 유통을 시킬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겠다. 공기의 습기흡수 능력은 기온이 10~15°C 상승함에 따라 배로 증가한다 하니 방한 대책으로서도 단열은 꼭 필요할 것이다.

(4) 월동대책

계사내 보온설비로서 난방기구 일체는 이달 중으로 준비하여 설치함으로써 닭이 저온으로 받는 스트레스를 예방토록 해 주는 것이 좋겠다. □□

□ 양계인의 영원한 친구 □

월 간 양 계 합 본

각권당 2000원

서울 중구 초동 18-11
한국가금협회